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양양소식

2021. 10. Vol. 317

기획특집_ 딱 한 달 동안만 만날 수 있는 명품 양양송이,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아름
다운

한글날

나랏말싸미

한글날
10. 09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딱 한 달 동안만 만날 수 있는 명품 양양송이
- 8 마을가는 길_ 현북면 어성전1리
- 12 맛있는 양양여행_ 신선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의 진미 양양 송이버섯



양양 남대천 황화 코스모스

의기양양

- 14 의정소식_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최
- 16 숨어있는 향토사 이야기_ 조선시대 양양 독송정(獨松亭)
주변과 얽힌 사연(事緣)을 알아본다
- 18 YANGYANG NEWS
- 20 공감 · 소통의 열린 군정_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22 2021 신규공무원_ 양양군 공무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열린양양

- 24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6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소식 · 317호

| 발행일 2021년 10월 4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딱 한 달 동안만 만날 수 있는 명품 양양송이, 지금 아니면 안 돼요!

20년에서 60년이 된 소나무 아래 솔잎이 넉넉하게 깔린 땅. 낮 기온은 26도를 넘지 않고 밤 기온은 1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 날이 가물면 포자가 발생하지 않고, 적당히 비가 내리더라도 기온이 높으면 포자가 썩는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자라기에 재배 또한 어려워 하나씩 손수 캐야 하는 버섯. 오죽하면 송이버섯 난 자리는 자식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는 말이 있을까. 일 년 동안 딱 한 달 동안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명품, 양양송이의 계절이 시작됐다.



버섯 중의 버섯, 송이 중에 양양송이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양양군의 가을은 송이와 함께 온다. 늦여름 잦은 비가 내렸고, 일교차가 벌어지면서 조금 이른 송이 채취가 시작됐다. 지난달 6일부터 시작한 양양송이 공판이 지난해 개시일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지면서 송이 채취량 증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의 송이 채취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만698kg, 2019년 7,606kg을 채취했으며 지난해에는 7,943kg을 채취했다.

수분함량이 적고, 몸체가 단단한 것이 특징인 양양송이는 향이 깊고 풍부해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으면서 2006년

산림청 지리적 표시 임산물 1호로 등록됐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만큼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양양군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송이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송이 군사 활성화에 기본이 되는 적송이 많고, 토양 기후 등에 해풍이 더해져 까다로운 송이가 자라기 적합해 품질 좋은 송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 신뢰감이 높아진 양양송이의 1등급 역대 최고가는 2009년 135kg을 기록했으며, 올해 양양송이 1등급 공판가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110만 원을 기록했다.



송이버섯은 자라기 시작한 지 5~6일 돼야 채취가 가능한데, 너무 성장하면 갓이 너무 피는 데다 향도 사라지고 질겨진다. 적당하게 성장한 버섯을 손수 일일이 찾아내야 하므로 제철 송이가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다. 새벽부터 산에 올라 채취한 송이는 양양속초산림조합에서 전량 수매하고 있다.

가을 송이철에는 매일 아침 공판장으로 모인 송이를 등급별로 선별하는데, 크기와 형태 등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각각의 해당 피지를 붙여 구분한다.

길이가 8cm 이상이며 고르게 성장하여 상처나 흠집이 없는 상태로 갓이 전혀 퍼지지 않아야 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1등급 판정을 받은 송이는 황금색피지를 두른다. 2등급에는 은색, 3등급과 4등급에는 동색과 주황색의 피지

왕실부터 일반인들까지 사랑한 버섯

우리 역사 속 송이버섯은 삼국사기 기록에 신라 성덕왕에게 진상했으며, 조선 시대에는 영조가 지극히 아끼던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진상품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술 더 떠 중국 사신에게까지 선물하는 귀한 식재료였다.

고려 시대 목은 이색은 동국이상국집에서 “예전 사람들은 신선이 되겠다며 불로초를 찾아다녔는데, 신선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송이버섯을 먹는 것”이라는 시를 남길 정도로 극찬했다. 조선 시대 서거정은 문집 사가집에서 “팔월(음력)이면 버섯꽃이 눈처럼 환하게 피어라, 씹노라면 좋은 맛이 담백하고도 농후하네.”라고 송이를 예찬하는 시를 남겼으니, 송이는 역사 속에서도 최고 대우를 받는 버섯이었다.

동의보감에도 “송이는 맛이 매우 향미하고, 소나무의 정기가 배어 있다. 나무에서 나는 버섯 가운데서 으뜸이다.”라고 했다. 위의 기능을 돕고 식욕을 증진시키고, 설사를 멎

를 각각 붙여 지리적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송이 수매와 공판을 담당하는 양양속초산림조합 이용화 과장은 “양양송이는 당일 채취한 송이 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취한 지 하루라도 지난 송이는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등외품으로 떨어지고, 당일 채취 송이만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송이는 신선함이 가장 중요하며,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송이보다 양양송이가 귀하고 값비싼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채취 시기는 보통 추석을 전후로 한 달여 동안 이뤄지는데, 국립공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송이 채취가 금지되어 있고, 군 유림에는 마을별 단체 등 허가를 받은 사람만 채취가 가능하며, 사유림 또한 소유주의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게 하고 기를 더하여 준다는 기록이 있다. 비타민이 많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주는 성분을 갖고 있어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으며, 군사체에 있는 글루칸이라는 물질은 강력한 항암 성분을 갖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며, 천연 철분 또한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채소보다는 약재에 가까운 대접을 받고 있다.



본연의 맛과 향만으로도 풍성

가을에 맡을 수 있는 내음 중 으뜸을 꼽는다면, 바로 송이버섯 향일 것이다. 은은한 소나무 향이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일 년에 딱 한 달 남짓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선한 송이버섯을 결대로 쪽쪽 찢어 그대로 맛보면 아삭하면서도 쫄깃하고, 알싸하면서도 달착지근한 맛이 따라온다.

까다로운 조건에서만 자라 오죽하면 송이가 난 자리는 자식도 안 가르쳐 준다는 말이 전해질까. 풍성하고 깊은 맛과 향의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요리는 되도록 단순하게 먹는 게 좋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내길

우리군은 송이 채취시기를 맞아 국유지에서 생산되는 송이 채취와 매각 권리를 주민들에게 한시적으로 무상 양여한다. 대상은 양양읍 율리와 서면 범부리, 손양면 상왕도리 등 모두 7개 마을이다. 기존에는 군 소유 임야에서 채취할 경우, 송이 공판액의 10%를 군 세입으로 처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마을에 전액 지급하

생으로 소금장에 찍어 먹거나 고기와 함께 구워 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오래 끓이거나 익히면 향이 날아가 맛이 덜하다. 주민들은 칼국수를 끓일 때 마지막에 송이를 넣어 살짝 익혀 먹거나 라면에 넣어 먹기도 하고, 고추장에 장아찌를 담가 두고 먹기도 한다. 죽이나 장국, 전골 등의 음식 재료로 먹을 수 있고 불고기, 돌솥밥으로 요리하는 음식점들이 많다. 송이를 조금만 넣어도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므로 때문에 양념이 강한 요리는 송이의 향과 맛을 느끼기에 적합하지 않다. 냉동 보관할 때에는 흠을 털어내고 날개 포장해 밀봉한 뒤 급속 냉동하는 것이 좋다.

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마다 10월이면 열리던 송이축제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를 취소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 어느 해보다도 송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로 손꼽히는 명품 양양송이로 양양군의 가을이 조금 더 풍성해지길 바란다. 〈글·사진 : 편집부〉



村村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현북면 어성전1리

어성10경의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마을
마을사업을 통해 이룬 주민 화합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장수마을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은 바라보는 이를 방심하게 만든다.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갖도록 한다'는 의미다. 가을은 방심하기 쉬운 계절이다.

한층 더 푸르러진 하늘과 그 안에서 천천히 유영하는 뭉게구름, 바람이 달리는 방향으로 낮게 눕는 황금빛 들녘과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물.

어성전1리로 찾아가는 길에 만난 가을 풍경들이 이제 그만 긴장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 같다. 잠시 마음을 열고 쉬어가며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겠냐고.



농촌장수마을의 모범이 되다

어성전리(漁城田里)는 전형적인 농·산촌 마을로 마을 주위는 성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기름진 전답이 수십만 평에 이르며, 크고 작은 계곡에는 물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이다. 산과 강을 지척에 두고 있어 식량이 풍부해 예부터 살기 좋은 마을의 이상향을 이룬 곳으로, 해방 이후 1리와 2리로 분할되었다.

현재 116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는 어성전1리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70여 명에 이르는 초고령화 마을이다. 노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지만, 3년간 농촌장수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 농촌건강장수마을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2016년 농촌자원분야 종합평가에서 농촌마을 가꾸기 분야 ‘대상’을 수상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

‘나이테 사랑으로 하나 된 솔내음마을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된 농촌장수마을 사업은 요가와 풍물, 목공예, 노래, 건강약선음식 등 5개 동아리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을 통해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꽃길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마을의 경쟁력을 키워왔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은 농촌장수마을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다.

김돈일 이장(69세)은 어성전1리가 여느 마을 못지않게 단합이 잘 된다고 자부한다. 주민들은 마을의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의 길흉사가 있을 때에는 서로 도우면서 정을 나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주민들이 모일 기회가 적어져 아쉬움이 크다. 얼른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단체 여행이든, 마을 잔치든 마을 주민들이 다함께 어울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천혜의 자연에서 찾은 소확행

어성전리에는 예부터 ‘어성십경(漁城十景)’이라고 하여 10가지 아름다운 풍광을 찬미하는 내용이 전해진다.

운문천석(雲門川石), 오현연수(烏峴烟樹), 화등낙조(花燈落照), 은담폭포(銀潭瀑布), 노봉명월(爐峯明月), 용소명탄

(龍沼鳴灘), 고적부운(高積浮雲), 내천유어(奈川游魚), 산사모종(山寺暮鍾), 모암어적(帽巖魚笛)은 어성전리 일대의 풍광을 찬미하며 붙여진 이름이다. 어성십경에 든 풍경들은 안개, 낙조, 밝은 달, 여울, 구름,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자연 안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법

심지어 저녁 종소리와 어부의 피리 소리까지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심히 스칠 수 있는 그 풍경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걱정과 시름은 잊은 채 그 순간을 즐겼으리라.

김돈일 이장은 ‘산사모종(山寺暮鍾)’-산속 암자에서 들려오는 저녁-에 등장하는 사찰이 어성전1리에 소재한 명주사(明珠寺)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넘지시 전했다.

명주사는 고려 때 승려 해명과 대주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다. 가까운 곳에 사찰이 있어서인지 어성전1리 주민 중에는 불자도 많다고 한다. 꼭 불심 때문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명주사는 많은 사람이 봄나들이를 하러 가던 장소였다.

1950년대,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명주사로 봄 소풍을 갔던 기억이 김용성 노인회장(78세)과 고충길 노인회 총무(78세)에게도 선연히 남아있다.

다른 동네까지 꽃놀이를 올 정도로 벚꽃이 장관이었다고 한다. 그 시절 벚나무는 이제 생을 다하고 사라졌지만, 오래전 봄날의 추억은 주민들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어성전1리는 물이 좋아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도 하다. 모내기를 끝낸 주민들이 천렵을 즐기며 고단함을 씻어 내던 어성전계곡은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물놀이 명소가 되었다.

가을에는 ‘송이버섯’이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준다.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 송이버섯 채취 기간이 되면 허가를 받아 마을에서 공동으로 버섯을 따다.

송이는 매년 같은 자리에 나는 습성이 있어 채취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고 한다. 채취 작업 후 산에서 내려와 새참으로 칼국수를 먹곤 하는데, 상품 가치가 떨어진 송이를 넣고 끓여서 색다른 식도락을 만끽한다. 마을 주민들이 가을에 누리는 작은 호사 중 하나다.



어르신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농촌장수마을 사업 종료 이후에 어성전1리의 행보는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주민 간의 교류도 뜸하게 되면서 이렇다 할 단체 활동도 못 하고 있다. 제자리걸음처럼 보이지만 어성전1리는 조금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올해 마을에는 군의 지원으로 새롭게 단장한 쓰레기 집하장이 생겼다. 철조망 울타리로 만든 기존의 쓰레기 집하장은 미관상 보기에 좋지 않았을 뿐더러 길고양이나 까마귀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통에 위생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새 쓰레기 집하장이 생기고 CCTV까지 설치해서 환경정비는 물론 쓰레기 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과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장 취임 4년 차를 맞이한 김돈일 이장은 어성전1리가 지금처럼 주민들이 서로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적 약자를 보살필 줄 아는 마을이 되길 꿈꾼다.



“노인 인구가 많은 마을인 만큼,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마을회관 앞에 야외용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내 운동기구도 군에 요청에 놓은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운동도 열심히 하고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어성전1리 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에 쫓기듯이 달려온 지난날을 돌아본다. 아직 이 가을은 한참 더 남았고, 아름다운 풍경도 기다려줄 것이니, 어성전1리를 지나게 된다면 잠시 ‘방심’해보자. 걱정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져보자는 말이다. <글·사진 : 편집부>



신선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의 진미

양양 송이버섯

청록(靑綠)의 여름을 지나니 이것저것 탐(探)하지 않을 것이 하나 없는 가을이다. 어제는 까마득하던 별들이 바람에 밀려와 달이 되더니, 오늘은 붉은 홍엽(紅葉)의 절세(絶世)에도 구름처럼 머물던 가을이 눈으로 마음으로 호사롭다.

찬 이슬 밤의 한로(寒露)에도 굽힐 뜻 없던 늙은 술나무가 꽃을 피우고, 덕(德)을 쌓듯 봉긋한 대궁마다 묘향(妙香)의 향기로 빛나는 양양 땅에도 일 만석(一萬石)의 가을이다.

뜻을 두고 굽어 살피지 않아도, 눈을 감고 돌아서면 서리서리 마음에 새긴 연정(戀情)이듯, 만공산(滿空山)마다 선품(仙品)의 향기로 무엇이라도 선뜻 비워둘 수 없이 다복(多福)한 양양이 가을로 지천이다.





양양 송이버섯의 이유 있는 존재감

양양의 가을은 선품(仙品)의 향(香)으로 무리 저야 진정으로 가을의 뜻이다. 다섯 가지 곡식과 백 가지 과일을 이르는 오곡백과가 만연하여도 임금 아래 백성의 품앗이로 올렸던 송이버섯이 돌아야 진짜 양양의 가을인 것이다.

신묘의 수작(秀作)으로 돕는 송이버섯이라는 게,神明(神明)이 거처하는 십승지(十勝地)와 다를 바 없이 자연과 담론하는 삼천리 땅에서도 음(陰)과 양(陽)이 조화를 이룬 ‘지기(地氣)’가 있는 땅에서만 돋으니 양양 땅은 분명 길지(吉地)라 할 것이고, 송이버섯은 분명 오행(五行)의 산물(産物)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쉬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성군 향기로만 찾아야 하고, 햇살보다 연한 손끝으로 신주(神主)처럼 들춰야 하는데, 이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 것이 아니라, 허리 굽혀 아래에서 위를 쳐다봐야 봉긋한 정도를 가늠하게 되니, 우리러봄에도 스스로가 겸손함을 따라야 비로소 볼 수 있는 ‘선품(仙品)의 군주’이다.

그 향을 따를 때도 무명천 비치 듯 실오라기처럼 가려내어 코끝에서도 향이 흠어질까 무겁게 앉는 것이 송이버섯을 대하는 섭식(攝食)의 예의라 하였다.

이렇듯, 송이버섯은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仙境(仙境)’의 향을 스스로 지녔으니, 누구였든 맛의 관직으로만 논할 것이 못된다.

지금의 양양 송이버섯이 지닌 뜻도 이와 같은 것인데 국민학교 다닐 적에 지게로, 소쿠리로, 망태기로 저 나를 때도 그 뜻만은 변함이 없었던 양양의 송이버섯은 길지(吉地)를 따르는 오행(五行)의 선품(仙品)이다.

사람처럼 아래에서 위를 봐야하는 유일한 선품

지금에서야 오늘 같은 청명의 가을이면 그 값이 양양부사 연암 박지원이 양양 땅을 이르러 호가(呼價)하던 1만 냥에 버금가는 송이버섯이지만, 선계(仙界)의 뜻으로 돕는 송이버섯이라 해도 귀하고 천한 것이 내 뜻이 아닌 때도 있었다. 잣송이에서 잣을 털어 백미 쌀과 바귀 먹는 게 송이버섯 벌이보다 나았을 때이다. 그때의 송이버섯은 등짐 값 정도로 산(山)물건을 다니는 산꾼들의 찬품이거나 두름으로 엮여 처마 밑에 매달렸다가 겨울철에 식구들의 소소한 약이 되어주기도 하였다.

이렇다 한들 흔한 것이 귀한 것이 되고, 귀한 것이 흔한 것이 되는 것은, 때에 따른 것이니 크게 아쉬워 할 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가을만 되면 그리워 잠 못 드는 양양의 송이버섯이다. 홀로 돕은 날송이, 서넛이 돕은 줄송이, 십 여 개가 함께 돕은 방석송이도 좋으려면 마당 밭에 셀 수 없이 봉긋하게 돕은 일천금(一天金)의 ‘마당송이 밭’이 누구의 차지가 되든 무관하다.

가을답게 푸르고 높기만 한 가을 솔 향 아래 낮은 몸짓으로 ‘송이 돈’을 줍느라, 먼저 피어 송이버섯을 기다리는 연분홍 ‘송이맛이풀꽃’의 허탕질에도 분하지가 않으니 말이다. 청록(靑綠)의 산수(山水)에 돕는 일천 구백여의 버섯 가운데 유독 송이버섯만이 사람처럼 유일하게 ‘금줄’을 두른다.

이 송이버섯 가운데서도 양양 송이버섯이 이토록 곤륜산 서왕모의 불로장생 묘약이라던 복숭아 인 듯, 팔도(八道)의 도처(到處)로부터 추대공신(推戴功臣)의 품계(品階)에 올라 있으니 양양의 송이버섯이 사람처럼 유일하게 ‘금줄’을 두르는 것에는 마땅하게 옳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개 안건 심의·의결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5건 등 총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9월 6일 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우섭, 간사 김택철)에서는 의원발의된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외 1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2건을 포함한 총15건의 조례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해당조례가 관련 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9월 8일부터 3일간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철, 간사 고제철)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하여 심의하였다.

이종석 부의장은 재난안전과에 대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도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고에 감사하다 전하며,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우섭 의원은 재난안전과가 추진하는 도로열선 설치사업을 시범 실시한 이후 꼼꼼한 성과분석을 통해 점차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김택철 의원은 동해안 군경계철책 철거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의증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므로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 줄 것을 관광과에 주문했다.



고제철 의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원하는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에 대해 농가에 꼭 필요한 시설이며 주민 호응도 또한 높은 사업이니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봉균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수해복구 비용 등 50여억원을 총당한 점은 바람직하나, 사전 적기에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못했던 부분에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수해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김귀선 의원은 노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해 타시군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다양한 방안을 고심해 줄

것을 복지과에 주문했다.

의원들은 예산편성 시 철저한 현장검증을 통해 전체적인 계획과 우선순위를 세워 체계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으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은 수정가결되었으며 양양철광 철도부지 토지매입 5억원, 군도5호선(오산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천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들은 9월 13일 개의된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였다.



8군단 류기연 중사 표창장 수여

소아암 환우 돕기 머리카락 기증 부서관

양양군의회는 지난 9월 8일,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소아암 환우를 돕기 위해 2년간 소중히 길러 온 머리카락을 기부한 육군 제8군단 류기연 중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선시대 양양 독송정(獨松亭) 주변과 얽힌 사연(事緣)을 알아본다.

여기 명품송(名品松) 한 그루가 마치 연리지(連理枝)처럼 자랐었다.

예전에 손양면 여운포리에서 남쪽으로 현북면 증광정리에 이르는 7번 국도변에 한 뿌리에서 세 가닥으로 자란 소나무가 있었는데 마치 다른 나무가 얹혀 자란 연리지(連理枝)와 같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우람한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된 이 금강소나무를 못사람들은 속칭 삼형제 소나무라고도 불렀다.

이 나무의 높이는 푸른 하늘을 찌르듯 하고 땅에 드리운 나무 그늘은 약 50여 평 주위를 덮으리만치 울창하여 사시사철 그늘이 떠나지 않으니 납량지(納涼地)로 적격이었다. 그래서 매년 한여름에는 피서 인파가 초만원에 이르렀고, 그 앞과 좌우가 환하게 터져 뛰어난 경치는 양양을 모르는 나라 안 사람도 독송정은 안다고 했다.

한편 독송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저 멀리 앞바다에 줄지어 밀려드는 고래 등과 같은 파도가 무한한 동해를 열어 놓고, 남쪽은 하조대를 마주 보며, 서쪽으로는 누룩 바위(국암(麴巖))와 주천당(酒泉塘)이 있는 여운포리 호수의 맑은 호기(灝氣)를 실컷 마시고, 북으로는 수산리 봉수대와 석굴 그리고 오산봉(鰲山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독송정엔 정철(鄭澈)의 시(詩)와 풍수설(風水說) 일화가 있다.

〈鄭澈 詩〉

폭도산수리 호기만한정 만리운개경 천년지유령
(幅圖山水裡 灝氣滿寒亭 萬里雲開境 千年地有靈)

산수의 경치가 한 폭의 그림 같은 속에, 맑은 기운이 빈 정자에 가득하니.
푸른 하늘 만 리에 구름 떠 있어, 천년 된 땅에 신령한 기운이 있도다.

풍전금운담 월하주배정 고향남비거 해천일색청
(風前琴韻淡 月下酒盃停 孤鶴南飛去 海天一色靑)

바람 앞에 거문고 소리는 맑고, 둥근달이 잔 속에 잠기는구나.
외로운 학이 남쪽으로 날아가는, 바다와 하늘은 한빛으로 푸르기만 하다.

〈風水說〉

한편 송강 정철이 풍수에 상당한 실력자로 알려졌는데, 그가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 당시 양양에 내려와 있었던 일화를 소개한다. 박정수 『살아있는 땅』 1995. p22.에 의하면 “한번은 송강이 상운리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온 동네가 기와지붕으로 덮여 있고 상운리 사람들이 모두 천석꾼 이상으로 잘사는 것을 보고 이 동네가 왜 잘사는가를 살펴보니 상운리 맞은편 여운포에 누룩 바위가 눈에 들어왔지, 송강은 그 바위의 정기로 상운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누룩 바위를 깨뜨려 산의 정기를 흩어버렸지” “송강이 왜 그랬을까요? 글쎄, 아마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양반인 자신을 팔시할 것으로 생각해서겠지”라는 웃지 못할 소설 속 이야기가 있어 전한다.

독송정의 소나무를 평양 연광정(練光亭)으로 옮겨갔다는 일화

구한국시대 평양 대동강 연광정(練光亭) 앞에는 심지도 않은 일체삼주(一體三株)의 천연송(天然松) 한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점차 자라면서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되자 외피(外皮, 껍질)에 해동정송이래우차(海東亭松移來于此)라는 여덟 자의 큰 글자(八大字)의 흔적이 완전히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양독송(襄陽獨松)이 옮겨 간 것이 사실이라고 백여년(百餘年)을 두고 떠들던 시절도 있었다는 속설(俗說)이 있다.

독송정과 상운정에 연접한 소나무 군락이 10리나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44권 양양도호부 누정(樓亭) 편에 “상운정은 부 남쪽 25리에 있다. 바다 곁엔 키 큰 소나무가 10리를 연달아 푸르게 그늘져서, 쳐다보아도 해가 보이지 않는다. 소나무 사이에 잡풀이 없고, 오직 산철쭉이 있어서 봄에 꽃이 피면 붉은 비단같이 화려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장구한 세월을 버텨온 독송정을 다시는 볼 수 없다.

손양면 승람지(巽陽面勝覽誌). 1954년 編纂)에 의하면 독송정 소나무는 이미 오래전에 고사목(枯死木)이 되었다. 송강 정철이 이곳 독송정에서 시(詩)를 썼다는 해(1580년)로 기산(起算)해도 소나무의 나이는 줄잡아 300년이 훨씬 넘는다. 여기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속담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낀다.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 정자(亭子)가 없는 곳에 한그루에서 세 가닥으로 자란 소나무를 보고 독송정(獨松亭)이라 불러왔었다. 그러나 실체(實體)가 고사 되어 뿌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곳 주변에는 독송정이라는 자연 부락이 형성되어 지금도 그 명맥(命脈)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자랑스럽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양양도호부 누정편 삼운정



독송정 인근 해변변 송림



독송정 인근의 누룩바위(여운포리)



독송정 입구 이정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4,062억원 확정

양양군이 기정예산보다 384억원 가량 증가한 4,062억원 규모로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

양양군의회는 9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5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4억 3,778만원이 증가한 4,062억 4,65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83억 5,601만원, 특별회계가 278억 9,051만원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을 통한 군민의 안전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양양군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 개설

지방세 환급 시 주민편의를 위한 '양양군 지방세 환급'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고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었다.

'양양군 지방세 환급'채널은 24시간 생활밀착형 환급신청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세정서비스이다.

지난 8월 기준, 찾아가지 않은 양양군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은 548건 14,979,160원에 달한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양양군 지방세 환급'을 검색 후 1:1채팅하기를 통해 이름, 생년월일, 계좌번호, 연락처를 남기거나, 환급금 통지서의 카카오톡 QR코드를 스캔해 접속한 뒤 환급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 은행명을 적어 메시지를 전송하면 된다.

이후 군청 세무회계과 환급금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 2~3일(은행 영업일 기준)내 환급이 이뤄진다.



양양군 농·특산물, 미국 수출을 통한 판로다양화 추진

소규모 수출업체의 수출 역량 증대 및 농식품 수출 품 조성을 위해 양양군 농수산물수출협회 지원에 나선다.

군은 지난해부터 수출 유망업체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양양군 농수산물수출협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미국 판촉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LA 시온마켓 등 오프라인 상설매장 입점을 통한 양양군 농식품 특별전을 10월중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9월 10일 설악산그린푸드 공장에서 수출품목에 대한 선적을 진행했다.

이번 수출 물량은 양양군 농수산물수출협회에 소속된 5개 업체(양양오색한과, 송천팜농업회사법인, 오색전통장,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 양양농협) 56개 품목으로 114백만원 계약이 체결되었다.

수출되는 농·특산물 품목은 명이나물, 청국장, 장아찌, 산채류(건조), 건 표고버섯, 쌀, 잡곡류 등으로 다양한 품목의 출하가 이루어져 우리군 농·특산물 판로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민 25,790명...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10월 29일까지 지급한다.

양양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6월말 기준 인구 28,035명 중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25,790명이다.

예산규모는 64억4천800만원이며,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하여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총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제2그린농공단지 100% 분양 완료...본격적인 활성화 기대

양양읍 포월리 제2그린농공단지가 100% 분양 완료 되었다.

2015년 5월 기존 포월농공단지 인근 10만 3,300㎡의 부지에 총 9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 제2그린농공단지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영향으로 최근 설악산하니팜(주)과의 분양계약을 마지막으로 분양대상 18필지 60,744㎡의 분양을 모두 마무리했다.

입주계약 기업은 친환경 농공단지에 걸맞는 식·음료품 12개 기업, 목재 및 금속가공 제품 4개 기업, 비금속광물제품 1개 기업, 전기 장비제조업 1개 기업 등이다.

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가동중인 기업은 ‘16년도 가동을 시작한 (주)설악산그린푸드’를 포함한 14개 기업이며, 최근 계약한 기업 등 나머지 4개 기업은 2022년 공장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도부터는 제2그린농공단지에서 14개 중소기업의 제품이 생산되며,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 “순항”

양양군 전원마을 조성용지 분양이 순항을 보이고 있다.

양양군에서는 강현면 정암리에 67필지 43,230㎡의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최근 토목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현북면 중광정리에 68필지, 37,030㎡를 ‘19. 7월에 준공하였다.

정암지구 조성용지 분양률은 ‘19. 11월에 선분양을 시작한 이후 3차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개 입찰하여 31필지의 분양률을 보였으나,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수의계약으로 전환, 9월 1일부터 개시하여 이틀간 매각대상 36필지 중 26필지를 계약하는 성과를 보였다.

정암지구 총 분양률은 분양 대상 67필지 중 57필지로 분양률은 85%이며, 매각 대금은 12,852백만 원이다. 계약자들은 서울·경기 지역이 38명, 경남, 충남 각 1명씩으로 전체 68%가 도시권으로 도시민 유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양양군에서 전원마을 조성이 이미 완료된 현북면 중광정지구는 68필지 중 39필지가 분양되어 5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공감·소통의 열린 군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월 14일 문화복지회관에서 '군민과 묻고 답하기' 행사 진행



김진하 양양군수가 민원인들과 일문일답하며 속 시원히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14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양양군수가 군민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행사는 오전 10시, 오후 2시, 2회로 나눠서 진행됐다.

사전 참여신청을 한 군민을 대상으로 각 90명씩 총 180여명의 군민과 함께한 이날 행사는 예상 질문이나 사전 자료 없이 주민들이 군정현안과 생활 속 민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김진하 군수가 즉답했다.

이날 행사는 행사 전 미리 문화복지회관 대강당 사전 방역을 진행하고, 입장하는 군민에 대해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작성 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됐다.

오전 10시, 오후 2시 각 2시간씩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총 36건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군정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먼저 동해북부선 노선 및 역사위치와 관련된 주민의 질문에 대해 김진하 군수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답했고, 역 위치는 양양읍과 낙산지구를 연계한 도심·관광지 확장에 기여해야한다며, 양양읍 송암리 양양역사 설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고층 건물이 진행되고 있는 낙산도시화와 관련한 도로,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주차와 상업기능이 복합된 저층 건물 신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군민을 최우선에 두고 군민이 최대한 이익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조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해결과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차장 조성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문제 해결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현면 주청리 공유지에 건립하려던 '로보카폴리 아쿠아파크'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지를 '선 대부, 후 매각하는 조건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 제안을 받아들였었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 진전이 없으면 공유지를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년기 웰빙센터와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질문에는 군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며 이와

연계하여 육아통합지원센터에 가족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주민 응급치료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서관 건립은 월리 택지에 군립도서관 추진을 계획중이라고 답변했다.

서면 수리, 용천리 주변 남대천에 퇴적물이 많아 준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김진하 군수는 실정법상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양양군민의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제반 추진사항 안내, 서면 제궁말 개발, 양양읍 화일리 루사·매미 수해 복구 당시 편입 토지 환매 사항, 현북면 하광정리 발개미 마을 구거 처리문제, 공항 소음문제, 코로나19로 인한 해수욕장 운영의 어려움 등 군정과 생활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시 답변하였다.

김진하 군수는 맺음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며, "오늘 모처럼 얼굴을 맞대고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와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통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2021년 양양군 신규공무원

“양양군 공무원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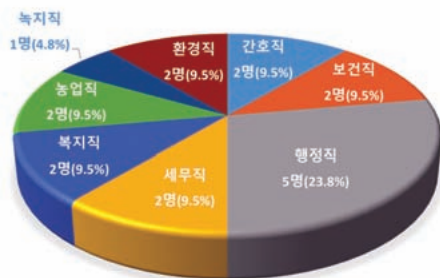
2021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신규공무원 임용

지난 3월 29일 2021년 제1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필기시험 6월 5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7월 8일, 면접시험 7월 26일, 최종합격자 발표 8월 20일, 그리고 9월 1일 임용등록까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이 났다.

이제 공무원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떼, 2021년 신규공무원들의 반가운 얼굴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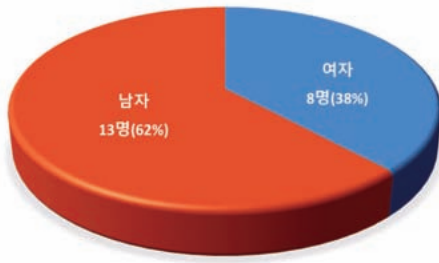
양양군 신규공무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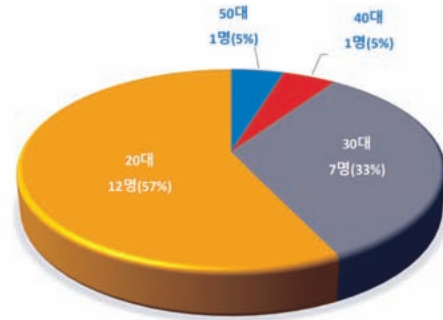
올해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최종 합격하여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간호직 2명, 보건직 2명, 행정직 5명, 세무직 2명, 복지직 2명, 농업직 2명, 녹지직 1명, 환경직 2명으로 총 21명(임용유예 2명 제외)이다.

이 중 보건, 간호직렬 신규공무원 4명에 대해 지난 8월 2일 먼저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이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른 보건소 직원들의 고충과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적재적소에 보건인력 충원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진행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진행했다.

여자 8명(38%), 남자 13명(62%)



20대 12명, 30대 7명, 40대 1명, 50대 1명



2021년 양양군 신규공무원은 여자 8명(38%), 남자 13명(62%), 연령별로는 20대 12명(57%), 30대 7명(33%), 40대 1명(5%), 50대 1명(5%)로 이루어졌다.

2021년 신규공직자 기본소양교육 실시

양양군은 올해 신규임용 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공직가치관 형성과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인원은 총 21명으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에서 기본소양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 둘째 날에는 ‘공직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진하 군수의 특별강의가 있었고, 군수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양양군에 대한 궁금한 사항 및 공직에 임하는 자세 등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신규공무원의 한마디

최영락(간호직)

“의료와 관련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해보니 정말 힘든 환경을 실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일 필요한 인력이라는 자부심을 느껴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주(보건직)

“8월 2일부터 보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고향인 양양에서 보건 관련된 직업을 갖는 것이 꿈이었어요. 다들 힘든 시기인만큼 직원들과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탁인숙(복지직)

“평소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부로 생활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간접적으로 접했을 때보다 실무현장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이 접하지만, 복지직으로 일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상민(운전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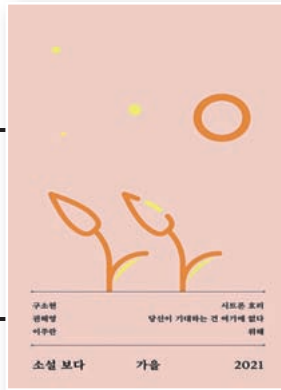
“가게를 운영하다가 운전직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운전직 업무가 다른 직렬보다 일찍 출근하고 위험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있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의 책이야기

소설 보다 : 가을 2021

구소현, 권혜영, 이주란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21. 9월



공선은 효주에게 본인의 감상과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효주에게는 유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유령은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일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됐다. 유령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었다. 존재하고 있지만 살아 있지는 않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 구소현, 「시트론 호러」

나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대자로 드러누웠다. 아무렇게나 늘어뜨린 팔꿈치 밑으로 오돌토돌한 게 느껴졌다.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더듬었다.

“당신이 기대하는 건 여기에 없다.”

콘크리트 바닥에 새겨진 글자였다. 햇벌이 다가왔다. 나는 손등으로 눈을 가렸다.

— 권혜영, 「당신이 기대하는 건 여기에 없다」

해볼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체념하는 편이 낫다고 수현은 생각했다. 조용히 살지 않아도 되는데 조용히 사는 거랑 조용히 살아야 해서 조용히 사는 것은 다르니까. 그리고 그 지점이 평생 수현을 조용히 화나게 했다.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 이주란, 「위해」

이달의 추천 신간도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너에게

송정연, 송정림 지음 | 쌤앤파커스 | 2021. 9월



인생선배인 엄마가 전하는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60가지 팁.

라디오 · 드라마 작가로 수십 년간 내공을 쌓아온 송정연 · 송정림 작가가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60가지 팁’을 담은 책이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자녀에게 전하는 엄마의 조언인 동시에, 젊은 시절 시행착오를 겪었던 과거의 자신에게 전하는 위로이기도 하다. 그 청춘의 시간을 떠올리며 그때 잘 몰라서 실수하거나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 아들만큼은 그러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한 기록인 셈이다.

오십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강창희, 고재량 지음 | 포레스트북스 | 2021. 9월



자식에게 기대던 시대에서 셀프부양의 시대로 과거만 해도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었다. 기대 수명이 적었기 때문이다. 요즘은 소위 ‘운이 나쁘면’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었다. 문제는 유례없는 초고령화 속도를 쫓아가기에 국가적 차원의 준비와 국민의 인식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이다.

홀로 사는 노인은 점점 늘어나고, 노후 빈곤은 이웃 국가인 일본만의 일이 아니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캥거루’ 자녀 리스크 등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만가있는날

라메시네마

DVD 무료상영회

10월 27일 (수)

영화관 안내데스크에서만 예매 가능
10.20(수)부터 현장방문 선착순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https://yangyang.scinema.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033-673-7050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주)신우그린 (설해원)	1명	골프장 코스관리원	08:00~17:00 (주5일)	연2,800만원
(주)곰든에스앤씨 (설해원)	3명	한식조리사	교대근무	월235만원
	2명	미화원	교대근무	월220만원
서울시니어스타워 (주)	4명	숙박시설서비스원 (캐셔, 식음료 서빙 등)	교대근무	월182만원
(주)월드팜	2명	버섯재배 및 포장원	07:30~17:30 (주6일)	월182만원
(주)스피어테크	2명	화장품제조 및 기계조작원	09:00~18:00 (주5일)	연2,190만원
(주)우리도건	1명	건축도장원 (초보자 가능)	근무시간 및 급여 협의	
동해석산	1명	덤프트럭운전원 (25.5)	08:00~17:30 (주6일)	월250만원
(주)남양인더스트리	1명	스테인레스 절곡기사	08:00~17:30 (주5일)	월190만원
농업협사법(주) 홀썬네이처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185만원
	3명	생산직 (닭가슴살 생산포장)	09:00~18:00 (주5일)	월185만원
새한자동차공업사	1명	자동차정비원	09:00~18:00 토:13시까지	월200만원 이상
(주)오션벨리	2명	리조트 시설관리 및 숙박관리원	09:00~18:00 (주5일)	연2,500만원이상
(주)소노인터내셔널 양양지점(설비직)	5명	프론트, 홀지원, 조리사	교대근무	연2,180만원이상(협의)
주식회사 한원	1명	건축공사 현장관리원 (공무포함)	07:30~17:00 (주5일)	월400만원
무산지역아동센터	1명	아동센터 시설장 (경력자)	10:00~19:00 (주5일)	월225만원 이상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강원상품권 가맹점(지류)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수시 / 12월 31일까지
- 추진목적 :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관내 강원상품권 가맹점(지류or모바일)으로 한정됨에 따른 신속한 사용처 등록
- 가맹점(지류) 신청·접수 방식
 - (기존) 신청·접수/ 농협 등 ⇒ 농협에서 신청서 Fax 등 송부(강원도) ⇒ 가맹점 승인(강원도 사회적경제과)
 - (현행) 신청·접수/ 읍·면 등 ⇒ 경제에너지부서 / 국민지원금사용처.kr 수시 등록 ⇒ 신청서 송부 가맹점 승인(강원도)
 - * 강원상품권 가맹점(모바일) 신청은 사업자가 www.제로페이.or.kr 에서 직접신청 ⇒ 국민지원금사용처.kr 연계 등록
- 가맹점(관내) 현황 / 9월 10일 기준 : (지류가맹점) 747개소 (모바일가맹점) 1,019개소 (중복) 419개소
- 문의사항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831)

양양남대천 일원 주민참여 나무심기 참여 안내

- 신청대상 : 지역주민, 단체, 출향군민, 자매결연 기관 등
- 접수기간 : 2021. 9. 13.(월) ~ 2021. 10. 15.(금)
(나무심기 : 2021. 10월 중)
- 참여방법 : 참여(기부)신청서 작성 후 남대천보전과에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papayajam@korea.kr
- 문의사항 : 양양군 남대천보전과 (☎033-670-2225)

서민들의 내집마련 도우미 HF 보증자리론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미성년자녀수에 따라 소득한도 우대)
 - 부부기준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이내 (3.6억원 한도)
- 우대사항
 -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신혼부부 금리 우대
 - ※ 3년 이내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 대출원금에 대해 경과일수 별로 1.2%의 한도 내에서 조기상환수수료 발생
 - ※ 인지세의 50% 등 부대비용 발생
 - ※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동부지사
(☎033-660-4711~4714 / ☎콜센터 1688-8114)

제9회 양양수채화 회원전

- 양양수채화동호회에서는 제9회 동호회원 작품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올해에도 전시되는 작품일부를 관내 다문화가정 10가구를 선정해 기증함으로써 외국인 주부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정서를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 전시기간 : 2021. 10. 19.(화) ~ 10. 23.(토)
 - 전시장소 : 양양문화복지회관 전시실
 - 주최 : 양양수채화동호회
 - 후원 : 양양군 강원문화재단 양양문화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올바른 선거를 위한 실천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란?

어원은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추진 일정과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지칭합니다.

매니페스토 선거를 위해 유권자가 해야 할 일

STEP.01	STEP.02	STEP.03	STEP.04
정당·후보자의 공약 비교	투표참여	공약 이행평가	다음 선거 지지결정

정당정책 및 당선인공약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알리미
(<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

양양군산불대응센터 신축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양양군  위치 : 양양읍 월리 22번지

제3회 주소기반 산업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2021.9.23.(목) - 11.19.(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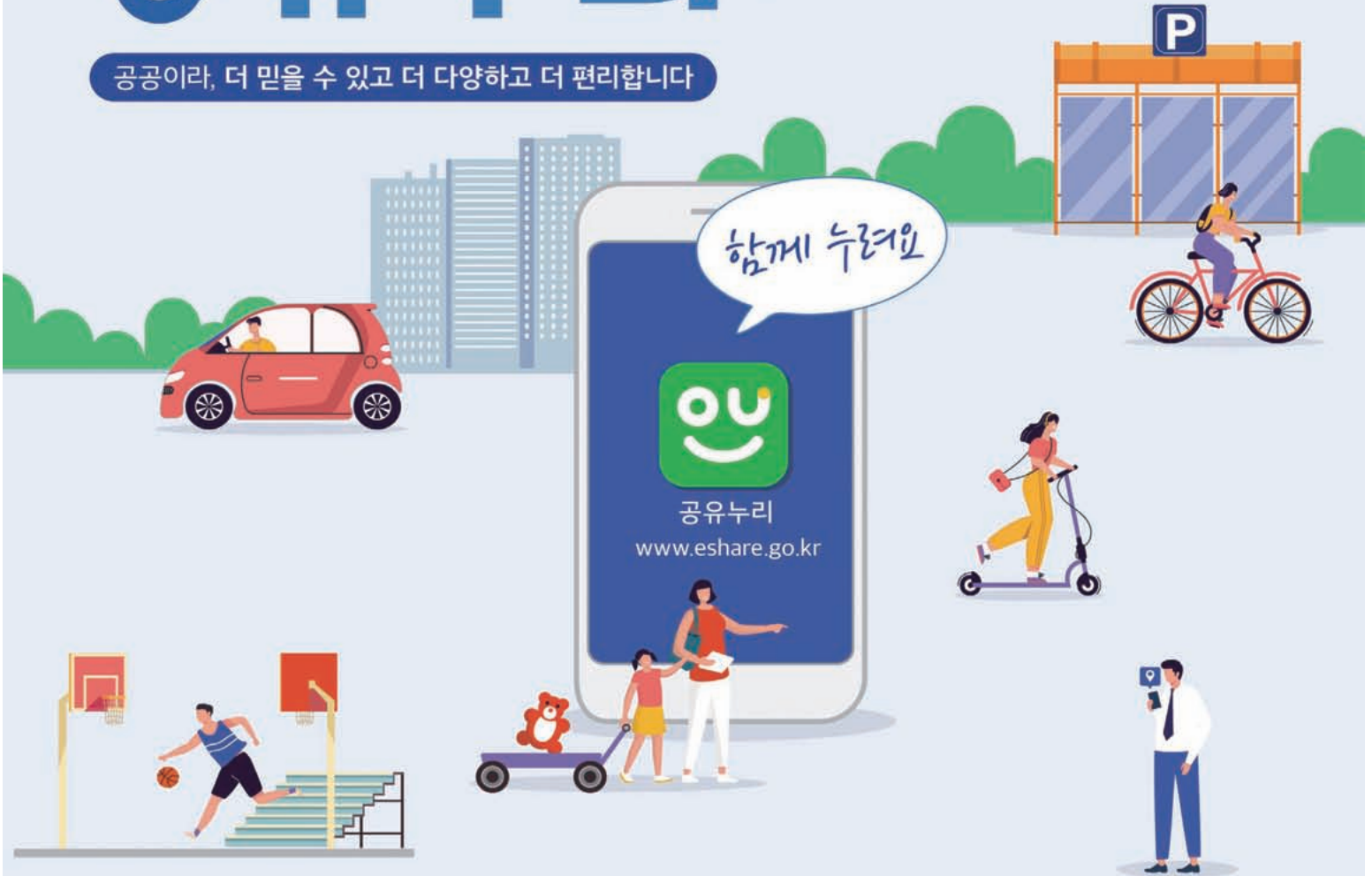
공모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www.lx.or.kr)을 참고하세요!

주최  행정안전부 주관  한국국토정보공사

온 국민이 누리는 공공개방자원 공유플랫폼

공유누리

공공이라, 더 믿을 수 있고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을 공유합니다

회의실, 체육시설은 물론 간단한 공구세트부터
숙박시설과 아이들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공공개방자원 11만여개 등록



소유의 경제에서 공유의 경제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해 국민의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R&D 실험 기자재와 강의 및
지식까지 공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



공유누리, 쉽고 편리하고 똑똑하다!

쉽고 편리한 검색방식과
공유지도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빅데이터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까지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위치정보 활용 및 푸시알림,
인공지능 챗봇과 음성-텍스트 변환기능 제공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공유누리' 검색 후
무료로 설치하세요

